

언론동향(2.18.)

《언론보도 목차》

1. 얼어 붙은 남북경협에 '불 지핀다' (인천일보) 2
2. 세계지질공원 손색없는 한탄강 (경기일보) 3
3. 道 '문턱'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확대 (경기신문) 4

얼어 붙은 남북경협에 '불 지핀다'

기재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채택
3차 북미 정상회담 염원 및 남북간 대화 시급성 강조

경기도의회가 소강상태인 남북경제 협력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최승원)'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지난 2018년 9·19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으로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의 원만한 진행과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발전되길 염원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평화와 통일에 절대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정부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수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화 및 협의 촉구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결렬 후 경기도의회는 정체된 남북관계 개선해소를 위해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송한준 의장이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들었으며, 이어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도의회 로비 및 대화의실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품 전시·판

매 및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 사진전에는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과 함께 연 판매전에는 입주기업이 생산한 속옷세트와 남·여 신발, 생활용품 세트, 양말세트, 미세먼지 마스크, 참기름선물세트 등을 선보였다.

송 의장은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의 공동 명예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의 기간 또한 연장했다. 지난 2018년 11월 6일 활동에 들어간 특위는 당초 지난해 11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도의회는 1년을 추가로 연장해 올해 11월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실효성 증진을 위한 평가체계 개발 연구용역'에 착

수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3월까지 진행하는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주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실효성 ▲정책방향 제시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 개발 등을 검토한다. 특위는 향후에도 각종 사업 추진 및 남북경제 협력 분위기 조성 등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대회경제정책연구원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에 따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향후 30년간 남한 163조3200억원, 북한 68조6000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시작됐으나, 올해로 각각 4년, 15년째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다.

/김종래 기자 jkomet@incheonilbo.com



세계지질공원 손색없는 한탄강

한탄강을 처음 만난 것은 2003년이다. 김추운 신한대 교수가 “한탄강이 보배로운 강이다. 집중 조명할 가치가 있다”며 “지역신문에서 이런걸 해야되지 않느냐”고 했다. 취재 욕심과 호기심이 발동해 한탄강을 찾기 시작했다. 지리학을 전공하고 향토역사문화에 박식했던 김 교수가 많은 자료를 쟁겨왔고, 현장 취재에 동행했다. 강줄기를 따라 강원도 철원부터 경기도 포천·연천을 누비고 다녔다.

한탄강 자료가 많지 않고, 지형 자체가 계곡이 깊어 강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강의 일부는 민통선내에 있어 군부대 허락을 받아야 했고, 유실된 지뢰를 밟지 않을까 늘 조심스러웠다. 자료 준비와 답사, 취재를 수개월 하고 2004년 38회에 걸쳐 ‘한반도의 보고 한탄강’이란 기획 시리즈를 경기일보에 연재했다.

한탄강 시리즈는 임진강의 지천 정도로 묻혀있던, 한편으론 방치됐던 한탄강의 가치를

집중조명한 탐사기획이다. 한탄강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화산이 폭발해 생긴 강으로 젊은 유년기 지형이다. 북한의 평강에서 발원해 비무장지대를 지나 남한의 강원도 철원을 거쳐 경기도 포천·연천을 흘러 임진강과 만난다. 길이는 141km에 이른다. 한탄강 시리즈는 강 곳곳에 숨겨진 보석들을 찾아내고 그 가치를 재발견해 테마별로 조명했다. 이 탐사 보도로 2005년 큰 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고, 2006년에는 ‘한탄강’ 단행본을 출간했다.

2010년이 지나면서 한탄강이 뜨기 시작했다. 감춰졌던 보물들이 하나하나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2년 포천의 ‘현무암 협곡 및 비둘기낭 폭포’가 천연기념물 제537호로 지정됐고, 2013년에는 포천·연천의 ‘아우라지 베게용암’이 천연기념물 제542호로 지정됐다. 또 2015년 12월에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고, 지금은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 중이다.

한탄강은 내륙에선 보기 어려운 화산암 지대로 주상절리와 협곡 등 경관이 뛰어나다. 고·중·신생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암석이 분포해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폭포·주상절리·판상절리·하식애·하식동굴 등 다양한 화산지형이 그대로 남아있어 지구과학적 가치와 생태학적·고고학적·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다. 한반도 형성과정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지질시대 암석을 살펴볼 수 있어 살아있는 지질 교과서라고도 한다.

한탄강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여부가 내달 결정된다.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가 미적, 고고학적, 역사·문화적,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한탄강은 여기에 손색이 없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3월에 기쁜 소식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道, '문턱'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확대

올해 17억 들여 관광지 환경 개선
무장애 관광지 리플릿 제작 배포

경기도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들이 불편 없이 도내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시작한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올해 17억여원을 들여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 ▲경기여행누리 차량운영 ▲관광약자 인식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해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시·군 공모를 통해 최소 3곳 이상 주요 관광지를 선정해 가족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분야부터 경사로, 엘리베이터

설치와 같은 접근성 분야까지 시설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대형버스 2대를 도입, 관광약자의 이동성 개선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지는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김포 국제조각공원, 가평 자라섬, 양주 장흥관광지, 용인 농촌테마파크, 양평 용문산관광지 등 주요 관광지 5곳의 시설개선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휠체어 탑재 가능한 특장차량을 운영해 총 3천500여명에게 도내 관광

의 기회를 제공했다.

'경기도가 추천하는 무장애 관광지'는 주요 도서관이나 경기관광포털(ggtour.or.kr)에 게재된 '문턱 없는 경기관광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관광지를 추가해 관광지별 리플릿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에는 볼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다양한 관광지가 있지만, 관광약자들에게 넘기 힘든 문턱들이 많아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며 "올해에도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포함하여 모두가 편안하게 관광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